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04 2015



이재만 회장 취임사



창조과학은 진화론에 맞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변증하는 사역입니다. 1859년 다윈의 진화론 책인 '종의 기원'이 출판된 이래로 교회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믿음의 근거인 성경의 사실됨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진화론을 학교 교실에서 가르침에 따라 지난 150년 사이에 세상의 가장 보편화된 생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억 년 간 경쟁과 멸종을 반복했다는 소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식의 지질시대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창조과학은 이 거대한 비진리인 진화론과 싸워야



하는 영적 사역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는 지난 33년간 최인식 회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진화론과 맞서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진화론의 과학적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자세를 유지해왔던 것은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의 자랑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감사뿐입니다. 이는 최인식 회장님께서 그들을 확고하게 이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과학선교회를 사용하실 것인지 아닌지의 일차적 여부는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견고한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장 보편화된 사고인 진화론과 대적하는 창조과학사역에 있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

결하라”(마 10:16)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번 회장이 된 저를 포함해서 각 강사님들이 세상에 대해 지혜롭고 말씀에 대해 순결을 유지하는 주님께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재만 소개

지질학 석사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 석사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구약학 석사(MTS) (Grand Rapids Theological Seminary)

저서: 창조주 하나님(2014), 빙하시대 이야기(공저, 2011), 노아홍수 콘서트(2009), 창조과학 콘서트(2006) (이상 두란노)



창조과학선교회 총회

지난 3월 6, 7일 창조과학선교회(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총회가 열렸습니다. 김무현, 이동용, 이재만, 최우성 강사와 당일 새로운 강사로 임명된 노희성, 이충현, 조희천 등이 참석했으며 장소는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982년부터(당시에는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장) 33년간 창조과학선교회를 이끌어 오신 최인식 전회장에 이어 이재만 선교사가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만 신임 회장이 창조과학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창조과학선교회 새로운 강사 임명

지난 강사 모임에서 새로운 강사가 세 분 임명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창조과학 사역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젊은 강사진이 보강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ACT 강사들 - Anza Borrego St. Park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강사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강사 소개



노휘성

이화여대 과학교육(지구과학 전공, BS)을 전공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지구과학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지구과학 교사로서 재직하였으며, 창조과학선교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 받았습니다.



이충현

University of Louisville 생물학과(BS)와 치과대학원을 졸업(DMD)하였습니다.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치과 의사로 활동하며 번역 등 창조과학 강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가 가능합니다.



조희천

한동대학교에서 학부과정으로 생명식품과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창조과학 사역자가 되기 위해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Mississippi State Univ.) 의 Computational Engineering에서 박사과정으로 지구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세미나

이번 모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진화 역사와 성경 역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인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극단적인 진화론과 함께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우중학 박사나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다중격변론을 주장하는 양승훈 교수가 등장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날 저녁 이재만 선교사는 “진화의 반대는?”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는 실제로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역사는 하나뿐이며 그 역사는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엄밀히 진화를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적힌 성경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유럽과 미국도 진화의 반대가 단순히 창조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을 때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사들은 이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재확인과 함께 훨씬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야외조사

지난 3월 7일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들은 앤자보레고(Anza Borrego) 주립공원 야외조사를 했습니다. 앤자보레고는 샌디에고 동쪽에 위치한 사막으로 노아홍수 직후에 그랜드캐년의 붕괴로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 만든 지층을 보여주는 훌륭한 격변의 현장입니다. 창조, 홍수, 홍수 직후, 빙하시대 등의 역사를 한 눈에 설명할 수 있는 폰츠 포인트(Fonts Point)와 역암, 습곡, 단층, 화석 등 마치 지질학의 실습장 같으며 그랜드캐년 붕괴로 퇴적물의 규모를 가늠케 할 수 있는 스플릿 산맥(Split Mts.)을 통해 그 격변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앤자보레고 주립공원은 지난 해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새롭게 개발



ACT 강사들 - Anza Borrego St. Park

한 창조과학탐사 지역입니다.

창조과학탐사

지난 3월 17-20일 행복한 교회(담임목사 박진성), 3월 24-27일 더사랑 교회(담임목사 이인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증거들을 보고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또한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손에 성경이 있는 것이 감사며 감격이었지만, 한편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각 나라에서 진화론이 스쳐 지나간 곳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진화론의 위험성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창조탐사 마지막 날 돌아오는 버스에서 각 간증들은 참석자들의 이런 마음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두 교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담임 목사님들께서 창조과학탐사에 먼저 참석하신 후에 성도님들로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두 교회 모두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창조과학탐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벌써 내년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탐사 300회 돌파

지난 2월 14-16일 YWAM 팀을 기점으로 창조과학탐사가 300회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창조과학탐사가 200번째였는데 약 3년 만에 300회를 넘겼습니다. 첫 출발이 2000년 2월 말에 이루어졌으니 지난 15년 간 매년 평균 20회를 출발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초창기에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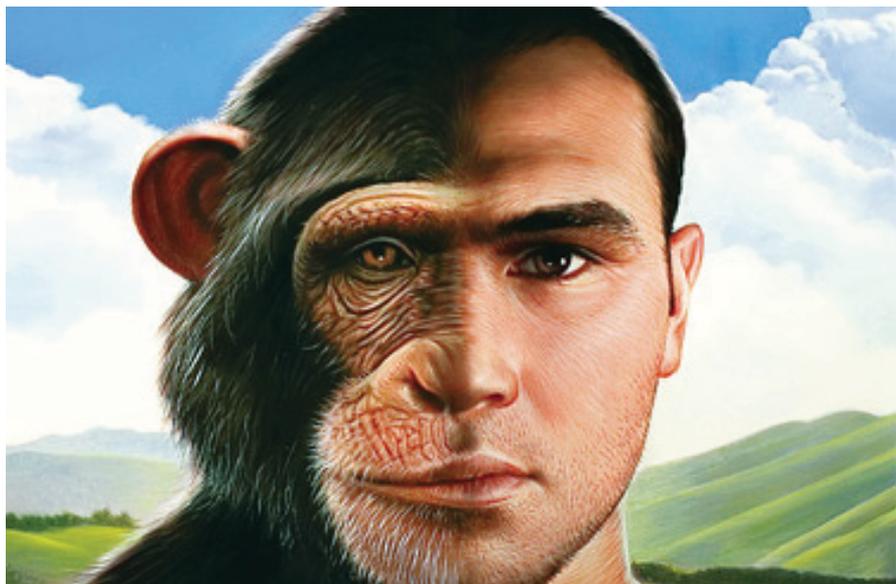
간 이루어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1주일이 넘는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 날짜는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참석하시고 다른 분들께 소개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조과학탐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차세대 사역자의 배출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16년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그 동안 중단되었던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2016년 1월에 다시 부활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중단되어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4-7일 나흘 간입니다. 횟수로는 17차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 공고합니다. 귀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사랑교회



1%의 신화

인간과 침팬지의 DNA 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과 침팬지의 DNA 가 단지 1%만 다를 정도로 '거의 동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를 들면, 2012년 보노보 침팬지의 DNA 염기 서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2005년 침팬지의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연구한 이래, 인간은 침팬지와 99%의 DNA를 공유하고, 따라서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이 보고는 다름아닌 사이언스지의 출판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이언스지는 영국의 네이처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과학 학술 논문지이다.

1%에 관한 최초의 주장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는 인간과 침팬지 DNA염기의 개별적 비교가 가능하기 훨씬 이전이다 - 인간의 DNA 서열의 초안은 2001년에 발표되었고 침팬지의 경우 2005년에 발표되었다. 1975년의 숫자는 이미 인간과 침팬지 간에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매우 제한적인 DNA부위를 미리 선택한 후, 그 부분을 대강 비교하는 방식으로부터 산출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미 골라진 DNA부위들이 서로 얼마나 잘 달라 붙는지 검사했다 - 이 방식은 DNA 재결합 (DNA hybridization)이라고 불린다.

1% 다른 것을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유전체는 약 30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1%의 차이가 정말 이라면, 약 3천만개의 문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크기의 책 10권을 만들 수 있는 숫자이다. 이는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 DNA보다 50배 많은 숫자이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수백만년의 세월이 맞다고 가정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진화론적 시나리오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초과한다.

진짜 차이는 무엇인가?

인간과 침팬지의 DNA 염기 서열이 발표됨으로써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침팬지의 유전체의 서열이 처음부터 편견 없이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침팬지 DNA의 작은 조각의 서열이 먼저 만들어졌다. 즉 이는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통하여 실제 염기 서열이 먼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은 염기 서열 조각은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유전체와 동일선상에 놓아야 한다고 여기는 곳에 배열되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전체를 제거시키고 이미 침팬지와 인간이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침팬지의 유사 유전체 (pseudo-chimp genome)를 남기고, 실제 침팬지의 염기 서열이 아닌, 재결합 서열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침팬지의 유전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진화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침팬지의 유전체의 염기 서열은 실제보다 훨씬 더 인간의 유전체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화론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이점은 1%보다 훨씬 더 크다.

2007년 사이언스지는 “비교적인 차이점: 1%의 신화”라는 제목의 인간과 침팬지의 DNA 유사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인 존 코헨은 계속되어 사용되고 있는 1%라는 숫자에 의문을 표했으며, 침팬지의 DNA 서열 초안이 약 5%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발표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동일한 사이언스지에서 1%의 신화는 지속되었다.

2012년, 제프리 톰킨스 박사와 제리 버그만 박사는 인간과 침팬지의 DNA를 비교가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신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미리 선별된 DNA부분이 아닌 모든 DNA를 고려한다면 그들은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체의 유사성은 약 87퍼센트 이상이 아닌, 아마도 81퍼센트 이하라고 결론짓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차이는 매우 크며 아마도 19% 이상일 수 있다. 실제로 톰킨스 박사는 스스로 정밀한 검사를 해 본 결과 그 차이가 약 30%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남성 염색체는 진화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복잡한 유전체를 비교하는 일은 어렵다. DNA의 다양한 부

분의 중요성과 다양한 형태의 차이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침팬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만 존재하는 유전자나, 반대로 인간에는 존재하지 않고 침팬지에만 존재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경향은 이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비슷한 유전자만 비교하는 것이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에 대한 많은 비교는 단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만 이루어졌고(이는 전체 DNA의 1.2%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유



전자는 실제로 매우 비슷하다), 나머지 DNA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쓰레기(junk)라고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거의 모든 DNA는 아마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진화론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크' DNA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에 비해 훨씬 다르며, 따라서 차이를 분석할 때 이 차이점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침팬지와 99% 일치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유전자가 얼마나 서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화론자나 창조론자 모두 DNA의 유사성이 계산되기 전까지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사성이 99%건, 95%건, 70% 혹은 그 무 에, 진화론자들은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인 반면, 창조론자는 공통 디자이너에 의한 창조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현상 과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기반해서 의미를 도출해 낸다(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진화론적 시간대 안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실제 차이보다 줄이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신화는 지속된다.

전체 유전체 간의 비교는 1%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이지만, 1%의 신화는 지속된다. 왜일까? 사이언스지는 왜 2012년에 이 신화를 되풀이했을까? 2007년 코헨은 독일의 맥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침팬지 콘소시움 멤버인 유전학자 스반테 파보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것이다.”

아마도 진화론자들은 1%의 신화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목적을 잘 수행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침팬지와 매우 다르다고 하는, DNA비교가 보여 주는 명백한 의미를 거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겠는가? 유사성에 대한 신화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심지어는 침팬지에게까지 인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큰 차이점은 진화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동물들과는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티끌로부터 첫번째 사람을 만드셨고 첫번째 여자를 그의 갈빗대로 만드셨지, 원숭이 같은 짐승으로부터 만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 형상은 타락시 소실된 것이 아니라 손상되었고, 하나님은 지금과 영원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출처 : Don Batten, Creation 36(1):35-37. / 번역 : 이충현, DMD

AFTER EDEN

by Dan Lietha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식물 속에 내재한 광합성 가속화 장치



나뭇잎은 강한 태양 아래에 있거나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빛을 받게 되면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 분자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잠시 후 그룹이 햇빛을 가리면 식물의 광합성 장치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최근에 한 식물 연구팀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빛의 조건에 대처하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mechanism)을 발견했다.

생물학 교과서에는 광합성의 기본 장치들의 기능이 소개되어 있다. 여러 가지의 놀라운 효소들이 나뭇잎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해서 잎 안에 있는 분자 펌프를 작동시킨다. 이 펌프는 물이나 공기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다른 이온들을 한 번에 하나씩 이동시킨다.

이번의 새로운 광합성 연구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의 기능과 같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복잡한 과정(mechanism)에 대한 연구였다. 효율적인 광합성은 이온의 흐름 조절에 달려 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육지 생물들은 궁극적으로 식물이 생산하는 탄수화물에 기초한 영양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더욱이 어떻게 식물이 빠르게 변하는 빛의 조건에서도 부드럽게 광합성 작용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금은 궁금해 할 필요가 있다.

한 국제 연구 그룹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효소인 KEA3라는 단백질의 새롭고 중요한 기능을 발견했다. 이 효소 단백질은 “역수송체”(antiporter: 교환수송이 존재하는 막 관통 단백질)로서, 적절한 순간에 수소 이온을 막 건너편

에 있는 칼륨 이온과 맞바꾸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효소의 작용은 녹색 잎이 강한 햇빛에서 적게 생산하다가 빛의 세기가 약한 상황에서 더 많이 생산 해야 하는 상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면 일어나게 된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과학 잡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Nature Communications) 에 “이 데이터들은 KEA3가 빛이 많은 양에서 적은 양의 조건으로 바뀌는 동안에 NPQ 기능의 중단을 가속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고 보고했다. NPQ는 비광화학적 형광소멸(Non-Photochemical energy Quenching)의 약자로서 식물이 강한 햇빛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이다. 빛의 세기가 약해질 때 KEA3의 활성화는 불과 몇 초만에NPQ의 기능을 중단시킨다. (즉, 축적된 에너지를 열로 전환하는 것을 잠시 중단시킨다.) 만약 KEA3 가 없다면 이 과정은 몇 분간이나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식물들은 가변적인 빛의 조건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매우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축적하게 된다.

저자들은 논문 어느 곳에도 식물에 이러한 햇빛에 반응하는 능력이 새로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KEA3를 포함한 식물 내부의 작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했을 뿐이다. 그들은 “식물이 이러한 작동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이미 내재한 내부 장치가 있다는 우리의 발견은 KEA3를 식량 생산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게 하였다.” 라고 언급했다.

여기 “내재한”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태양 전지판을 세우려는 사람은 자연이 태양 빛을 저장해서 유용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알 것이다. 자연이 아닌 누군가가 그러한 장치를 만든 것처럼, 누군가 (Someone) 놀라운 장치를 식물 속에 만들어 넣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광합성에 사용된 완벽하고 놀라운 “내재된” 장치를 설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연구는 창조주 하나님이 광합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빛에 빠르게 반응하는 장치를 고안하셨음을 보여준다.

Reference

1. Armbruster, U. et al. Ion antiport accelerates photosynthetic acclimation in fluctuating light environments. Nature Communications. Published online November 13, 2014, accessed November 14, 2014.

Brian Thomas, M.S. ICR 작가,
번역: 조희천 (지구물리학박사과정)

창조과학 탐사

간증

안산동산교회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자'고만 했고 성경에 대해 직접 알려주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같이 읽고 가르쳐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미경 <안산동산교회>

집에서 초등과학실험을 하는 저로서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모른 척 하고 조금은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항상 갈등하기도 하고 잊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라 믿었던 저에게 이 창탐 여행은 그 다리를 놓고 물고를 뜨게 해준 사건입니다. - 장시내 <안산동산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격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 시간 울컥하게 밀려오는 벅찬 감동이 삶에서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 최경순 <안산동산교회>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창조의 하나님과 노아 홍수때의 일을 생생히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필립

심판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며 증인이셨던 예수님을 선교사님을 통해 확증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인 <안산동산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증하게 되고 확신 할 수 있도록 세세한 자료로 현장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 추복례 <안산동산교회>

창조과학탐사여행은 내 나이 56세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박 사건이다. 하나님의 창조,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멋집니다. - 이미화 <안산동산교회>

탐사 전 나의 존재는 우주 속의 작은 티끌 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세 남매를 창조과학탐사여행에 꼭 보내리라 다짐하며... - 석금숙, 손경오 <안산동산교회>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에 대한 확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만이 사실임을 널리 알리는 일이 시급함을 깨달아 교과서가 수정될 때 까지 우리면서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겠다. - 한봉환 <안산동산교회>

진화론이 거짓됨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벅찬 감동으로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이영애 <안산동산교회>

노아의 홍수, 바벨탑사건 등을 연결하여 생각하며 노아의 8명 가족이 우리의 계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박혜란 <안산동산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더욱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확신 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사명감을 깨닫게 해주시고 뜨거운 기쁨 안고 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 이희형 <안산동산교회>

기대 이상의 감동과 확신, 그리고 더욱 더 확고해지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과 점진적 창조론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9/4-10, 2014

자신감과 함께 ... - 김동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처럼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창탐여행이 피로 값 주고 세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임을 큰 틀로 보았습니다. - 김기철 <안산동산교회>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진화론을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많이 인정하고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탐사를 통해 확고한 분별이 되고 믿음이 변화의 모습으로.. 자녀를 꼭 보내고 싶다. - 조윤진 <안산동산교회>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마다 꼭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문자적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 몸이 굳어지는 듯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진화론의 허구를 그 동안의 잘못된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시간 내어 창조과학탐사 다녀가십시오. - 전병삼 <안산동산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막연하게 생각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노아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현장을 바라보니 더욱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자신 있게 증거하겠습니다. - 정영식 <안산동산교회>

하나님의 능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하여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 전남옥 <안산동산교회>

3대 कै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물로 심판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아픔을 깊이 헤아려보면서 남은 생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참 감사합니다. - 배성수 <안산동산교회>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와서 듣고 배워 바르게 알고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릴 때부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진용순 <안산동산교회>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통한 깨달음과 감동은 나의 신앙생활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해왔던 것에 더욱 확신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매시간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인선 <안산동산교회>

성경이 확실한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에 전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화가 난다. 이번의 감동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친척과 이웃 직장에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전하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 - 김병옥 <안산동산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7-10 창조과학탐사 (R&R), 이재만
 4/11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4/11 세계아가페선교회 (노희성), CA
 4/13-17 창조과학탐사 (수원성교회), 이재만
 4/18-19 엘바인열린교회 (이재만), CA
 4/20-26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4/27-5/4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5/11-14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5/16-21 창조과학탐사 (천안제자교회), 이재만
 5/21-27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3-25 EM 창조과학탐사 (ANC 온누리교회), 김선욱
 5/28-6/4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5-6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이재만), WA
 6/8-15 창조과학탐사 (Basic Church), 이재만
 6/16-19 빙하시대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6/22-24 빙하시대탐사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6/27-7/5 창조과학탐사 (늘푸른교회), 이재만

7/6-11 창조과학탐사 (Compassion), 이재만
 7-8-10 EM 창조과학탐사 (나침반교회), 김선욱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 교수), 이재만
 7/13-16 EM 창조과학탐사 (OMA), 김선욱
 7/23-26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